

동상





개발! 생태계의 악마



도예원 | 부천 상인초등학교 3학년

산을 깎고 깎고 깎고 도로가 완성된다. 부릉부릉 바퀴가 돈다. 차가 뽕뽕 소리를 낸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그곳에 갔다. 헉, 왜 도로가 있지? 아름다운 동물의 집, 산이 어디 있지? 어제 책에서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말. ‘아! 사실이었어!’ 솔직히 그 책을 보고 난 뒤 이해가 안 됐다. 개발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근데 난 지금 느꼈다. 왜 그땐 동물을 생각 못 했지? 사람들만 생각했지? 지금 보금자리를 잃은 동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산에 사는 동물을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개발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종이에 썼다. 개발로 좋은 것, 첫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로 나빠진다는 것은 첫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나쁜 먼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둘째, 동물이 살 곳이 없다. 셋째, 산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는데 자연환경이 보

존이 안 돼 자연이 언제 없어질 수도 있다.

조금만 생각했는데 개발에 좋은 것은 두 개, 나쁜 것은 세 개! 안 되겠어!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개발하라고 알려줘야겠어. 저녁을 먹으며 나는 가족과 함께 의논했다. 가족들은 내가 기특하다고 했다. 물론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 그 결심을 한 후로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생태계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제발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태계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것이다. 잠들기 전 너무 설렌다. 과연 내가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눈을 감았는데 벽찬 가슴으로 자꾸만 내 머릿속 자연의 모습이 아른거린다.